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어디까지 광주시-시의회 대상 놓고 신경전



광주시의회(의장 조영표)는 8일 오후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임택 시의원의 사회로, 전문가와 의원·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내년 상반기 시행...市 “공사·공단 등 지방 공기업만”

시의회 “출자·출연기관장 포함 도덕성까지 검증”

지방공기업 등 광주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를 놓고 시는 공사·공단 등 공기업이지만 하자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는 출자·출연기관장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맞서 결과가 주목된다.

윤장현 시장이 최근 시의회에 출석,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큰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민진기 시 예산담당관은 8일 시의회가 주관한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의안을 소개했다.

이 협의안에 따르면 청문회 대상은 공사·공단 사장(이사장)이다.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등 4곳 기관장이 해당한다.

청문회 주관과 운영은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시행 근거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 협약으로 정할 계획이다.

청문은 내정자를 선임하고 나서 하고, 능력검증만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문 대상자는 능력검증에 필요한 자기

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력·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 등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시는 오는 2월까지 시의회와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5월 임기가 끝나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시의회는 일부 규모가 큰 출자·출연기관장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청문 범위도 능력검증만이 아닌 도덕 검증까지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견해 차이가 커 청문회가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광역시 중 서울과 대전 등 2곳이 공사·공단만 간담회 형식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도 이 범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은 “경기, 제주는 공기업은 물론 출자·출연기관도 청문회를 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청문회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모두 4곳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별시와 광역시 중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와 대전시, 광역 도(道)는 경기도와 제주 등 4곳이다. 충남은 내년 2월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청문회가 진행된 공공기관은 서울 5곳 등 16곳에 이르고 있다.

서울과 대전은 시의회 기본조례(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와 의회운영(인사청문 간담회 운영규정)에 근거해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등 공사 4곳, 시설관리공단 1곳이다.

대전시는 도시공사 등 공사 3곳과 시설관리공단이며 사장이나 이사장 내정자가 대상이다.

청문 범위는 서울시는 능력검증을, 대전시는 능력검증 이외에 도덕성, 가치관 등 한층 까다롭다.

9개 광역 도 가운데는 경기도와 제주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으며 각 협약(도시·도의장·산하기관장)과 의회규(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지침)가 근거다.

청문대상은 경기도는 공사 1곳, 출연기관 5곳이며, 제주도는 공기업과 일부 출자·출연기관 등 4곳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휘발유 1500원대 주유소 나올까

정유사, 공장도가 ㄹ당 50~60원 인하

국내 정유사들이 8일 자정을 기해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공장도가를 ㄹ당 50~60원 정도 인하할 전망이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사들은 매주 화요일 0시를 기준으로 한 주간의 공장도가를 공개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 비밀이라서 공장도가를 발표 전에 미리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가격 인하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인하폭은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50~60원 정도로 예상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하루 3000만 배럴의 생산 목표량을 유지하기로 한 뒤 두바이유 가격은 75달러 선에서 66달러선까지 10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공장도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주유소들이 미리 사 둔 물량이 있고, 이윤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가격은 여전히 천차만별이겠지만 ㄹ당 ‘1500원

대 주유소’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은 분명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ㄹ당 1691원이며 ‘1500원대 주유소’는 339곳이다. 전국 최저가는 경북 상주시의 ‘베스트원셀프 주유소’가 전남보다 20원을 내려 1519원을 기록했다.

‘1500원대 주유소’는 알뜰주유소가 72곳으로 가장 많았고,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각각 62곳, GS칼텍스 59곳, S-OIL 52곳 순이다. /연합뉴스

전남 첫 공공산후조리원 수탁기관에 ‘해남병원’

전남도 5억원 지원...내년 상반기 운영

민선 6기 이낙연 전남지사의 대표 복지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수탁기관으로 최근 해남병원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올해 해남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비로 5억원을 지원하며 시설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한다.

도는 내년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로 1억440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14일)는 154만원으로 일반산후조리원 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취약계층이나 셋째아 이상 자녀의 경우 이용료의 70%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남도 내 타 시군 산모들도 해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같은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내년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추가 공모해 선정한다.

현재 전남 지역 산후조리원은 총 7곳으로 목포(2곳), 여수(2곳), 순천(2곳), 광양(1곳) 등 모두 시 단위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군 단위 산모들이 출산과 요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이 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전남도는 2018년까지 68억원을 들여 총 4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동네 빵집의 부활’ 1면에서 계속

이외에도 ‘삼봉베이커리’, ‘프렌드베이커리’, ‘아티장 홈(동구)’, ‘빠띠쉐(서구)’, ‘토리네코’, ‘안테르센과자점(남구)’, ‘브레드 팡(북구)’, ‘달보드레(광산구) 등도 최근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동네빵집들이다.

이호성 제과협회 광주지회 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30~40대를 중심으로 동네빵집을 창업하려는 이들이 늘어 회원업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맞서는 도종 브랜드의 성공이 긍정적 분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회 차원에서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견학과 실습을 강화하고 매년 열리는 광주제과제빵전행과 페스티벌을 통해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는 것이 동네빵집의 부활을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한편 동반위의 규제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전년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신규 출점할 수 있으며,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는 피해야 한다.

내년 논·밭 소득보전직불금 확대

매년 벼와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고정직불금이 2015년부터 ha당 10만원 인상된 100만원이 지급되고 밭직불금은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전남도의 쌀 고정 직불금은 올해 1577억원보다 174억원이 늘어난 1751억원이 지원된다.

전남지역 농가 12만9000곳이 올해보다 평균 14만원 정도를 더 받게 돼 쌀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왔다. 또 밭농업직불금은 현재 채소류 등 26개 적용 품목에서 잡곡·과수 등 전체 재배 품목으로 확대되며, 지급 대상 농지도 현재는 지목을 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사실상 밭이면 전부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 밭 직불금은 562억원으로 올해보다 270억원이 늘어나 농가당 평균 52만원 정도가 더 지원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면세점 담배 많이 사면 정밀검사

관세청, 밀수 집중단속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범정 한도(1인당 1보루)를 넘어 과도하게 담배를 구매하면 세관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담배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수출 적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태세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담배는 세율이 62%(2천500원 기준 1천550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담뱃값이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되면 면세점, 수출서류 조차 등을 통한 밀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통을 막고자 수출신고서 심사과 선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운암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타워 완비

7층 참고은 피부과
입점완료

5층 참조은 안과

4층 한길 통증 의학과

4층 신한은행

2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1층 신한은행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점술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jM NAVER 백세생활건강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